

## 영천시, 코로나19 확산 따른 버스 감축 운행

###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천시 관내 운행중인 일부 버스를 감축 운행한다.

운수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줄어들어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영천시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운수업체의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내버스 감축운행에 따라서 기존 대구행 노선(55번, 555번)은 배차

간격이 기존 11분(일일 84회 운행)에서 15분(일일 64회 운행)으로 감축 운행한다.

또한, 시내지역 노선(1번, 2번)은 기존 주중 배차기준에서 주말(휴일) 배차기준으로 변경돼, 1번 노선은 74회에서 60회, 2번 노선은 60회에서 51회로 감축 운행한다.

한편, 군위군의 요청에 따라 군위군으로 운행하는 시계의 노선(281번, 281-1번, 291번)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군위군 지역에 출입하지 않고 영천시 내부에서만 운행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관내 출입하는 시외 버스를 지난달 27일부터 감축 운행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 고속노선은 5회에서 3회(07:30, 13:00, 18:50)로, 대구행 노선은 28회에서 7회, 부산행 노선 6회에서 3회, 포항행 노선 20회에서 5회 등 기존 대비 70% 감회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 1일 개통하기로 한 경북도청-영천-경주-울산 간 노선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개통 연기한다.

영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급감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버스 운행을 감축하게 됐으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 경주시·시의회, 생활치료센터 지정 수용

### 보문단지내 농협 경주교육원

### 대구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지정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 경주시 보문단지에 위치한 농협 경주교육원이 대구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공공담화문을 내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방침을 수용하고 협조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 경주교육원은 보문단지 내에 위치한 농협직원 교육과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로 214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시와 시의회는 “정부방침에 관광도시 경주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봐 깊이 우려했으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이 생활치료센



터로 지정받아 운영 개시했고, 경북에서는 영덕군 삼성인력개발원과 문경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이 이미 지정돼 입소를 앞두고 있고 경주시도 보문단지에 위치한 농협 경주교육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를 수용할 예정이다. **이경만 기자** huplan21@naver.com

## 이승율 청도군수, 답지 온정의 손길 “따뜻한 나눔에 감사”

### 1억2천여만원 상당

### 물품·성금 기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군에 지역 단체와 주민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격려와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청도상공인협의회, 청도군쌀기연구회, 청도경찰회,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재경청도향우회 등 17개 지역사회단체와 산동세원주간보호센터, 효자순주간보호센터, 진정농업회사법인, 생생초농업회사법인 등 14개 청도법인, 지역 주민 대구 소재 기업, 경기도 구리시청, 울산 남구청 등 총 52개소에서 약1억2천500만원 상당의 물품(마스크, 손세정제, 물티슈 등)과 성금을 청도군에 기탁했다고 밝



청도군 직원들이 최근 지역 및 각지에서 기탁한 물품을 지역 노인보호센터로 전달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했다.

특히 군은 기탁받은 물품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남병원, 요양병원, 보건소, 자가 격리자 등에게 즉시 전달했으며,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율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힘

든 시기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에 모든 청도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다같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하루빨리 군민들이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욱 기자** hmo4910@naver.com

## 경주시, 예비비 선제적 투입 ‘코로나19’ 예방 총력

### 선 집행·후 승인, 긴급 재정집행 실시 14억6천만 원 집행, 방역 물품 구입에

경주시가 예비비 14억6천만원을 선제적 투입해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이 적기 사용 후 예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가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으로는 경계단계인 지난달 27일에 열화상카메라 11대, 손소독제 5만개를 구입해 관공서, 경주역, 신경주역 및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

치했다.

그리고 방역마스크 14만개(1억5천만원)를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요양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해 안전망 구축에 대응했으며, 또한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고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손소독제(2천만원)를 지원해 구입·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성지순례자 20명에 대해 귀가조치 시키지 않고, 공항에서 바로 토함산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해 29일까지 격리하고 검체

를 실시하는 등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예비비로 집행했다.

이 밖에도 감염확진자 입원지원비, 주거생활비, 생필품, 입상부 마스크 지원, 중국 유학생 보호 등에 예비비를 선 집행하고 후 승인을 받는 절차로 시간을 단축하는 긴급 재정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활동을 더욱 더 강화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관광지 및 전시장 등에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광객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대비해 최대한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만 기자** huplan21@naver.com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가족 긴급출동 119기동반 운영

경북남부보훈지청은 고령의 보훈가족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출동119기동반’을 지난 2일부터 운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면서 재가복지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보훈재가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고령의 거동불편 보훈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복지인력으로 긴급출동119기동반을 구성하고 지난 2일부터 긴급서비스에 나섰다.

재가보훈대상자 450여 가구 중 병원

동행이나 생필품 구입 등 긴급한 서비스 수요에 대해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 및 무료급식소 휴관으로 경로식당에 폐쇄됨에 따라 결식 우려 대상자에게 5일치 대체식품, 밀반찬을 주 1회 제공한다.

**이경만 기자** huplan21@naver.com

### 경주췌, 빈틈없는 조치로

### 코로나19 예방 총력

경주경찰서는 대민접촉 활동이 많은 경찰관들의 안전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찰서 내·외에서의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서는 기존 실시하던 청사 출입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경찰서 출입 관리 조치와 함께 경찰서, 파출소, 112 순찰차 등 경찰차량을 매일 방역 소독하고, 경찰서 방문인의 출입사항을 기록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동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구내식당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간대별 소인원 분산 이용하도록 구내식당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마스크 표면 오염물질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용 마스크 겹이를 설치했다. 또한 직원들의 불필요한 사무실 간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매일 개최되는 코로나19 대책회의의 전·후 회의실을 소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의심 신고 출동 시 방호복을 착용 후 출동하는 등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경만 기자** huplan21@naver.com



육군50사단 영천대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장면 (영천시 제공)

## 육군50사단 영천대대, 방역활동 지원

### 군부대 제독차량 동원

영천시는 3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부대 제독차량을 지원 받아 관내 중점관리 아파트 주요도로에 긴급방역을 실시한다.

50사단 영천대대 육군 현장지원팀은 미사일 사령부에서 지원된 제독차량 1대(인원 3명)를 고정 배치해 영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3일부터 코로나19 안정시까지 매일 제독을 실시한다.

또한, 제독차량 뿐만 아니라 군장병

4명을 추가로 지원해 영천시 소독반과 합동으로 4개팀 17명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실내소독을 지원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장은 “육군50사단 영천대대에서 시민 보호에 앞장서서 방역활동에 힘써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방역활동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를 조속히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선별진료소 의료진 응원

경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경산시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한 응원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산시는 3일 기준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은 식사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의료진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간편식 도시락을 마련해 전달했다.

경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경산시에는 보건소, 중앙병원, 세명병원 3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 지역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에 힘을 얻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선별진료소를 찾아 도시락을 전달한 서금희 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



리를 구하는 것은 파스칼이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빠른 시일내

에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욱 기자** hmo4910@naver.com